

# 이용섭 “수영대회 성공 감사 주요 시정 현안도 정상추진”

### 역대 가장 성공 대회 평가...광주형 일자리·4차 산업 선도도시 자신감



이용섭 광주시장이 19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합법적인 설립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한 달여 동안 광주를 뜨겁게 달군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에 대해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광주형일자리와 AI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국제수영연맹(FINA)과 각각 선수단으로부터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턱없이 적은 예산, 북한불참, 국내스타선수 부재라는 3대 악재에도 광주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된 시민의식, 지역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덕분에”이라며 시민과 언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광주는 ‘수영대회 광주’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대한민국은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대회를 모두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남은 과제는 수영 인프라 확충 등 레거시사업(유산사업)을 통해 광주대회의 경험과 효과를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사업인 자동차공장 설립은 계획된 방향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반기 작곡, 2021년 하반기 양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20일 합법적인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관, 법인명칭, 대표이사를 확정하고 8월 중 법인설립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업이라서 언론과 중앙정부 등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광주를 인공지능(AI) 대표도시,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는 자신감도 나타냈다.

이 시장은 “인류 역사상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사회 때는 차선을 바꾸지 않고서는 앞자를 추월할 수 없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사회 때 풀리지 않던 것이 풀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이야말로 우리가 일본 등을 제치고 진정한 첨단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측면에서 낙후된 도시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도시를 앞지를 수 있는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라며 “광주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대표도시가 되는 것이 해법이고 이는 4차 산업혁명이 지능화 혁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클러스터 사업내용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집중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이 ‘AI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우리 광주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기에 AI전문가들로 AI사업 추진위원회와 추진단(가칭)을 발족시켜 운영하고 실리콘밸리와도 협업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지난 6월19일 기자회견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끝나고 바로 도시철도 2호선을 착공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9월5일 도시철도 건설 기공식을 개최해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주승용 국회의장이 솔로몬제도 일정 성료

주승용 국회의장이 이끄는 ‘남태평양 징용희생자 추모 및 빛물식문화 지원 대표단’박공은, 김성찬, 임재훈 국회의원, 국회불포럼 부회장 서울대 한부영 교수, 한국환경연합회 남궁은 회장, 이하 대표단’이 현지시간 지난 14일 수요일부터 시작한 솔로몬 제도에서 공식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3일간 공식일정을 끝낸 대표단은 14일 솔로몬제도 호니아라로 이동해 15일 오전부터 솔로몬제도 빛물 식문화 지원 공식일에 참석하고, 광복절 74주년 기념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추모행사를 가졌다.

특히 ‘Edson Ridge 국립공원’에서 열린 <광복절 74주년 기념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추모행사>는 태평양 전쟁 당시 헨더슨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로 끌려와 노역에 동원되어 희생당한 2,200여명의 조선인들을 추모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국회불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 추모행사에서 주 부의장과 대표단, 그리고 솔로몬제도 관공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과 솔로몬제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 노래를 제창했다.

이 날 행사에 대해 현지 언론과 현지인들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한·일 갈등이 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과거 일본의 만행에 대해 다시 한번 남태평양 국가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 부의장은 “솔로몬 재외동포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기쁘다. 남태평양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생각하며 외교역량 확대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표단은 부의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불포럼’과 ‘한국수자원공사’, ‘서밋237’, 그리고 솔로몬제도 정부와 함께 <빛물 식문화 지원> 관련 세미나를 솔로몬제도 수도 호니아라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 부의장은 “대한민국과 솔로몬제도의 인연은 70년 전에 처음 시작되었다. 일본군의 강제징용으로 수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곳 비행장 건설에 동원되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모두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 하자는 차원에서 솔로몬제도의 심각한 식수문제를 함께 해결 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동구, 이동친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광주 동구가 아동친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지난 4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동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를 비전으로 생활환경, 안전, 교육환경, 보건복지, 놀이권 보장을 위한 도시 공간조성 등 5대 분야별 ‘동구형 아동친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자연친화적 공간조성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재능아동 꿈나무 지원 ▲이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공동육아나눔터 및 장난감 도서관 권역별 확대 운영 등 5대 영역 20개 아동친화도시 세부사업이 포함됐다.

## 서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광주 서구가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서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정규 프로그램은 나를 찾는 인문학당, 우리를 알아가는 시민학당,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예술학당, 내일을 준비하는 다모작 학당, 마을 보물을 찾는 서구학당 등 5개의 학당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내용은 소설로 읽는 일제식민의 역사, 예술로 만나는 5.18, 연필로 그리는 서구의 공원, 스마트폰 삶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 등 총 24개 프로그램이다.

과목별 선착순 50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서구청 홈페이지 통합교육방(www.seogu.gwangju.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광주 남구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4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사회복지관과 30일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이번에 점검을 받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은 동산대 종합사회복지관과 인애 종합사회복지관, 양지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3곳이다.

점검 대상은 시설 운영과 관련해 시설 설치기준 및 각종 대장 관리, 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등이 이뤄지며, 시설 종사자 관리와 회계관리, 후원금 관리 분야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북구,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

광주 북구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2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주민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영화관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배신불량,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확보여부, 소화기 교체 등 안전관리 상태 △법적기준 준수 및 안전성 여부 등이다.

## 광산구 소상공인들, 배달의민족 성공비결 배운다

광주 광산구가 22일 광산문화관에서 배달 앱(App)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배민 아카데미 주관으로 특별 강연, ‘영업 성공 스토리 및 노하우, 프랜차이즈 경영론’을 개최한다.

자영업자 경영역량 강화,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특강은, 5~7월 진행돼 성료한 ‘광산구 소상공인 아카데미’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 특강으로는 지난달 2일 책 <한국형 장사의 신> 저자 김유진 외식업 컨설턴트에 이어 두 번째다.

배민아카데미는 외식업체 매출증대를 위해 2014년부터 업주·에비창업자 무료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 광주시, 가을태풍 선제 대응...예방·대응·복구 3단계 점검

광주시는 가을태풍 피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난대응태세 전환을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가을태풍 피해가 많았던 사례를 감안, 태풍 상륙에 앞서 재난 예방·대응·복구 등 3단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방단계에서는 붕괴, 침수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대형공사장, 노후주택, 비닐하우스 등 재난 취약시설

선진조사서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발전관리시설에서 제외된 5m 이하 급경사지 등 관리 사각지대의 안전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대응단계는 전문가와 함께 CCTV, 예·경보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재난 주관부서의 임무, 상황별 대응시나리오와 자체 훈련실시 여부 등 상황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복구단계에서는 민관 협력 체

계, 재난자원관리 실태, 구호 및 긴급지원체계 등을 점검 점검한다. 재난 발생 시 즉시 체계적인 현장 대응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마다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지역 맞춤형 ‘안전광주대진단’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1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평군 공고제2019-856호

**함평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해보면 산내리 5081번지에 해보리조트 소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20.

**함 평 군 수**

1. 사업개요  
가. 위 치: 전남함평군 해보면 산내리 5081번지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2019. 8. 20. ~ 2019. 9. 6. (14일간)  
나. 장 소: 함평군청 투자개발과  
다. 열람도서: 함평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3. 관계도서 및 도면: 「계재량표」(열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대신하며, 관계도서를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투자개발과(061-320-1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